

(주)삼일 울산 UCE영화관 테마 멀티샵 신축공사

중소규모현장! 5S로 산업재해 사각지역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큰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사명인 것이다.

선열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안전한 나라 건립에 일조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을 향하는 하늘에는 선열들의 격려의 함성인듯 단비가 내린다.

도착한 곳은 (주)삼일 건축사업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울산 UCE영화관 테마멀티샵 신축공사(소장 권준도)” 현장이다.

규모는 작지만, 작은 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안전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전현장 5년 무재해를 이룸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성실한기업이다.

한서건설로 출발한 (주)삼일 건축사업부는 현재 전국 9개 현장에서 무재해 시공을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그중 “울산 UCE영화관 테마멀티샵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연면적 2,220평으로 9월 20일 최종 공사완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현장이 분주한 가운데 권준도소장을 만나보았다.

회합으로 안전한



▲ 소장 권준도

건설안전리포트

직장풍토 조성

한 현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각종 시설물과 현장근로자, 관리감독자가 있다. 즉, 이들 요소들이 안전할 때 현장은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권준도 소장의 논리이며,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주체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안전 주체인 근로자와 직원, 서로가 믿음이 없으면, 불신이 생겨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곳 현장에서는 서로 어우러지는 화합 속에서 안전한 직장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권준도 소장도 현장에 나갈 때면 근로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또한 친선 체육대회, 정기적인 회식자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직장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재해 현장의 바탕, 5S

(주)삼일 건설부문의 전 현장은 5년 동안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5S운동이 바탕이 되고 있다.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예절이 기본이 되어 삼일 그룹차원에서 10년 동안 중점 추진해 온 안전활동이다.

이곳 현장에서도 5S 운동은 기본이 되고 있다. 특히,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과 최고의 출역인원이라는 상황에서 5S운동은 필수적이다.



마감공사가 사소한 사고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볼 때, 안전의 기본인 정리, 정돈을 강조하는 5S운동은 현장내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이렇게 기본이 뿌리내려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서는 기초부터 성실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에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은 없다

안전사고 한 건 없는 무재해 현장을 이룩하는 것이 권준도 소장을 비롯한 이곳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공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지방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의식이 낮은 것이 통념이어서,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무지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지방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야기의 취지이다.

그 중 이곳에서 하고 있는 특별안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개념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특별안전교육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이곳 현장에서의 안전은 끝이 없어 보인다.

평소 “안전에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은 없습니다.”라고 말하





는 권준도 소장은 개인적으로 10년을 지나온 현재까지 하루하루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까지 거두었던 성과는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중요 사항이 아니라며, 하루하루 무재해 달성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차근차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건설인으로서 사고없이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은 나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덧붙인다.

중소규모 현장에 안전기술 지원 확대 필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온상이며, 안전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이 선진 안전국 대열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안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달에 1,2회 방문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권준도 소장의 의견이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도 대기업화 되어야 하는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 확대와 전문지도기관에서의 방문주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무재해 무사고는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영광이며,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는 권준도 소장의 당부처럼,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만큼 남은 기간 더 매진한다면, 반드시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전한 (주)삼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금 이대로의 자세로 항상 정진하여 선진 건축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